

## 한총련을 사수하고 공권력에 의한 성추행 자행하는 반인륜 패륜정권 김영삼 정권 타도하자!

김영삼정권은 자신의 안정한 정권 재창출을 위해 한총련을 눈에 는 가시처럼 여기면서 한총련을 없애버리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 대선자금 전면공개와 살인폭력 부정부패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한총련의 투쟁이 고조되자 한총련에 대한 탄압공세는 극에 달하고 있다.

한총련은 학우들의 직접선거를 통해 이루어진 대중조직으로서 김영삼 정권이 한총련을 탈퇴하지 않는 총학생회와 대의원 모두를 검거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은 한국학생운동의 역사를 전면으로 거부하는 용납 못할 작태인 것이다. 역사와 민족의 반역자 김영삼 정권이 한총련 탄압에 광분하면 한수록 그것은 한총련의 주장과 투쟁이 정당하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이다. 아무리 정권이 한총련 말살책동을 벌이더라도 한총련은 4천만 민중과 백만의 힘으로 지켜낼 것이며 백만의 노력으로 계속혁신해 나갈 것이다.

### “ 계속되는 공권력에 의한 성추행 ”

김영삼정권은 군부독재 시절보다 더 악랄하게 살인적이고 폭압적인 진압으로 우리의 동지들을 연행, 구속해 가고 있다. 또한 연세항쟁 때 야수직으로 여학우들을 성추행하고 유린하더니 이제는 호시탐탐 반인륜적이고 패륜적인 작태를 행하고 있다. 연세항쟁, 서총련출범식, 한총련출범식 등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은 공권력에 의한 성추행의 진상을 규명해 내고 살인적 진압을 자행한 김영삼정권과 그의 하수인 경찰 책임자들을 처단하는 투쟁으로 힘있게 일어설 것이다.

청년학생들의 피어린 투쟁속에서 이뤄낸 4천만의 희망이며 백만학도의 상징, 단결의 구심점인 한총련을 끝까지 사수하고 문면독재 반인륜 패륜정권 김영삼정권을 조기에 타도하고 조국의 자주, 민주, 통일을 이루기 위한 투쟁에서 역사와 민족앞에 부끄럽지 않게 열심히 싸워 나갈 것이다.

김영삼타도원년 7월 23일  
서여대협 간부학교 참가자 일동

---

## 11기 서울지역여대생대표자협의회